



THE GOSPEL NEWS

재일대한기독교회
선교 100~110주년
표어
감사의 백년
소망의 백년
(데살로니가전서 5:18)

1963년9월20일 第3種郵便物許可 (毎月一日発行)

2016년6월1일 (토) 제 752호

발행처 복음신문사 (1부 100엔)

〒169-0051 東京都新宿区西早稲田2-3-18

☎ 03-3202-5398

발행인/ 김성재 · 편집인/ 김병호

info@kccj.jp (복음신문)

어린이주일
설교

어린이와 같은 자

<신명기 4:9, 마태 11:25>

김명균 목사 (후쿠오카 중앙교회)



매주 몇 가지의 설교를 준비하고 그것을 선포하는 목회자에게 그것은 확실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며 축복인 동시에 그 중압감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도 분명한 것입니다. 하늘에서 매주 설교가 들려오며 매주 특별한 감동이나 간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식도 경험도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오직 주신 은혜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경험이 없다고 말하면, 저에게는 아이가 없습니다. 어린이 주일 메시지를 부탁 받았을 때 다른 의미에서의 출산의 고통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만... 육아의 행복과 고생으로 인한 자신의 성장은 이루지 못했지만, 육아를 하는 분들의 가정을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많은 것들을 배우게 해주셨습니다. 거기에서 육아의 어려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자녀와 후손의 부분을 읽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자신과 교회와 세계의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읽고 있습니다.

1. 신명기 4:9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네 마음을 지키라. 두렵건대 네가 목도한 일을 잊어 버릴까 하노라. 두렵건대 네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네 마음에서 떠날까 하노라. 너는 그 일들을 네 아들들과 네 자손들에게 알게 하라.>

“네 마음을 지키라.” “그 일들이 네 마음에서 떠날까 하노라. 너는 그 일들을 네 아들들과 네 자손들에게 알게 하라” 라고 써 있습니다만, 이것은 자신이 바르게 믿는 것과 욕심에 유혹되는 일에 조심하여 미래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복음을 선포 하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믿습니다. 신앙 생활을 계속 하다보면 눈에 보이는 것들과 처해진 환경 등에 의해 처음 구원의 감동이 희미해져가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많은 은혜와,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체험하고 진정한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앞으로 계속되는 생애 가운데 자신들이 충분히 주의해야 할 부분과 자녀들과 손자손녀들에게 전해 가야 할 일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것을 전해가는 것은 그 것이 과거의 이야기 뿐만이 아니라 현재 우리들을

인도하는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매일 초심으로 돌아가 평생 말씀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며 어린이들에게 진지하게,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전해가는 것의 중요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2. 마태 11:25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이에게는 배울 점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언급된 어린 아이들은 단순히 욕심이 없고 마음이 순수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자, 스스로를 낮추는 사람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복음서의 다른 곳에도 예수님은 거듭해서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이 하늘 나라를 볼 수가 있고, 믿고 받아 들이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은 완고하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에게는 구원의 진리와 진정한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며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늘 자신을 비우고 욕심을 내어 버릴 때 자신의 오만과 잘못된 신앙에 눈뜨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경험과 생각, 그리고 소원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취사 선택하거나, 요구를 들어 주시기만을 바라는 기도와, 말씀과는 다른 변명을 늘어 놓으며, 자신은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봉사나 헌금을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자 라며, 믿음이 있는것 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부족함과 자신의 연약함을 항상 느끼며, 날마다 주님을 구하고 사람을 비교하거나 판단하려는 우월감을 가지지 않으며, 낮고 작아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이상으로 주님을 바라보거나, 유의하지 않고, 마음으로 부터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아이에게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먼저 자기 자신이 확신하고, 그것을 아이들에게 좋은 모범으로 나타내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가는 것이 지금 오늘 제 자신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며 또한 사명인 것입니다.

2016 年度牧師・伝道師考試及び宣教師加入考試

在日大韓基督教会の「2016年度 牧師・伝道師考試及び宣教師加入考試」を以下のように実施します。神学考試委員会細則 (<http://kccj.jp/archives/959>) 及び宣教師加入考試請願書 (<http://kccj.jp/archives/148>) を参照して申し込んでください。

一. 日時: 2016年9月22日 (木) 9時~19時

※ただし、宣教師加入考試に応募者は、人事部面接を受けてから考試に臨むことになります。

二. 場所: KCC (大阪市生野区)

三. 考試科目

<牧師・伝道師考試> ①旧約聖書 ②新約聖書 ③旧約釈義 ④新約釈義 ⑤組織神学 ⑥教会史 ⑦憲法 (総会憲法・総会規則・裁判規程等)・KCCJ神学 (在日同胞史、KCCJ史、KCCJ宣教理念)

<宣教師加入考試> ①憲法 (総会憲法・総会規則・裁判規程等) ②面接

四. 提出書類 (各正本 2通)

<牧師・伝道師考試> ①考試請願書 (総会様式) ②地方会長推薦書 (総

会様式) ③履歷書 (総会様式) ④神学生研修会参加証明書 (伝道師応募者) ⑤最終学校卒業証明書・卒業予定証明書 ⑥最終学校成績証明書 (伝道師応募者) ⑦写真2枚

<宣教師加入考試> ①宣教師加入請願書 ②牧師按手 証明書 ③宣教師派遣・推薦状 ④宣教師 後援 約定書 (宣教費等) ⑤日本宣教会志望動機書 ⑥履歷書 (総会様式) ⑦経歴証明書 ⑧総会加入理由書 ⑨最終学校 卒業証明書 ⑩最終学校 成績証明書 ⑪写真2枚

五. 申込期限: 2016年8月20日

六. 考試料 (8月20日までに必着)

牧師考試: 2万円/伝道師考試: 1万円/宣教師加入考試: 1万円

*郵便振込口座: 000130-9-159228 (在日大韓基督教会総会)

*考試料・交通費は、応募者の所属する各教会と各機関で補助して下さい。

七. 提出先: 総会事務局 (東京都新宿区西早稲田2-3-18-52)

総会長 金性済/神学考試委員長 金武士/書記 朴榮子

지
방
회
부

제직연수회 개최

주제 「초대교회의 사명」 아래

지난 3월13일(주일)에 서부지방회 제직연수회가 교육부의 주최로 고베교회에서 있었다. 강사는 이리에키쿠오 목사(일본 동맹기독교단 후쿠오카메구미교회)를 초대하여 초대교회의 사명이라는 주제로 듣는 이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사도의 가르침에 굳건하게 지켰고, 영적인 사랑의 교제를 했으며, 주님이 제정하신 성찬을 함께하며, 서로 힘을 다하여 기도에 힘쓰며, 사도들이 말씀을 전파할 때에 이를 받아들여 세례자가 매일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셨다.

지금 우리는 초대교회의 사명을 전수받은 자들이다. 이 사명을 계속적으로 지켜야 하며, 후손들에게 전수해야 할 책임이 있다. 서부지방회의 새로운 제직원과 지방회가 초대교회의 사명을 마음속 깊이 담아서 각자의 처소에서 묵묵히 다해 줄 것을 바라는 마음이다.

●한택주 목사(히메지 교회)



<도쿄희망그리스도교회>

주진안장로 취임식 거행



4월24일(주일) 도쿄희망그리스도교회에서는 주진안장로 취임식이 거행되었다. 장경태목사의 설교(자기 십자가, 마태 16:24-25), 지방회장 김근식목사의 사식으로 서약 및 선포가 있었다.

취임한 주진안장로는 1952년 한국에서 출생하여 2001년 전주그리스도교회에서 장로 안수를 받고 2013년부터 동경희망그리스도교회로 이적하였다.

<교토교회>

김재철 명예장로가 소천



경도교회의 김재철 명예장로가 4월22일 자택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향년 85세.

고 김재철 명예장로는 1986년 교토교회에서 장로로 장립되어 오랜 세월 교토교회, 관서지방회, 재일대한기독교회를 위해서 봉사하였다.

<후쿠오카교회>

김인과목사 위임식 거행



4월17일(주일)오후 후쿠오카교회에서는 김인과목사의 위임식이 거행되었다.

임시당회장 김명균목사의 사회로 최영신목사가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 (수1:10-18)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목사위임식은 서남지방회장 주문홍목사의 사식으로 서약과 선포가 있었고 김

성효목사가 권면을, 중간사 김병호목사와 일본그리스도교회 조난교회 사와마사유키목사가 축사를 했다.

이어서 집사로서 긴 세월 동안 봉사해 온 카네시마세이코, 하수모토히로시 명예집사 추대식도 거행하였다.

김인과목사는 1953년 한국에서 출생하여 서울신학대학, 일본의 릿쿄대학, 장로회신학대학교를 졸업하고 1980년 목사안수를 받았다. 2005년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일본선교사로 파송받아 10년 동안 기후교회를 섬겨왔다.

<기후교회>

고성목사위임식 거행



4월17일(주일)오후 기후교회에서는 고성목사위임식이 거행되었다.

임시당회장 김성제목사(나고야교회)의 사회로 이근수목사(오가키교회)가 <낙심하지 말고> (고후4:16-18)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목사위임식은 중부지방회장 대리 권윤일목사(하마마츠교회)의 사식으로 서약과 선포

가 있었고 정수환목사(토요하시교회)와 전병옥목사(나고야미나미교회)가 권면을, 스기모토카즈미치(일본기독교단 카가미하라교회)와 타다아키라목사(일본기독교회 기후교회)목사가 축사를 했다.

고성목사는 1978년 한국에서 출생하여 류큐쿠대학, 동경신학대학, 매코믹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2013년 관서지방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았다. 2012년~2014년에 오사카교회에서 전도사 및 부목사로 섬겼다.

<무코가와 교회>

조순원장로 취임식 거행

김은미권사 취임식도 동시에

4월10일(주일) 무코가와교회에서는 조순원장로, 김은미권사의 취임식이 거행되었다.

양영우목사의 설교(나는 어떤 일꾼일까? 딤후4:9-12)와 사식자에 의한 서약과 선포가 있었다.

조순원장로는 1949년생으로 2000년에 코베동부교회에서 장로로 장립을 받고 무코가와교회로 이적하였다.

김은미권사는 1955년생으로 무코가와교회에서 20년간 집사로서 성실히 봉사해 왔다.



<중부지방여성회>

제56회 정기총회 개최

4월14일(목) 오전 11시부터 토요하시교회에서는 중부지방회 여성연합회 제56회 정기총회가 개최되었다.

아라이유키목사(나고야교회)가 (주님께 쓰임 받는 나) (룻기4:1-17)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후 아라이목사의 사식으로 성찬식을 거행하였다. 이어진 회의는 정인성회장의 사회로 활동계획 및 예/결산안의 심의와 승인을 한 후, 고성목사(기후교회)가 설교하므로 폐회예배를 하였다.



<관서지방여성회>

제63회 정기총회 개최

관서지방회 여성연합회 제63회 정기총회가 11교회에서 49명의 대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3월 24일(목) 히라노교회에서 개최되었다.

개회예배는 김종권목사(히라노교회)가 '성서가 읽는 여성' (누가복음10:38-42)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후, 김필순 목사가 성찬식을 집례하였다.

회의는 정혜숙 회장이 진행하여 2015년도 보고 및 2016년 활동방침 부터 시작해서 관서지방회여성부, '색동의 집', 각 교회 여성부의 보고 등이 있었다.

(보고자 : 조화자)



<서부지방여성회>

회장회의 및 1일 연수회 개최

서부지방회 여성연합회의 「회장회의 및 1일연수회·요리강습회」가 3월7일(월)오전10시30분에 무고가와교회에서 개최되어 24명이 참가했다.

개회예배는 박영자부회장의 사회로 시작하여 양영우목사(무고가와교회)의 「당신의 신앙은 어디에 있는가?」 (눅8:22-25)를 주제로 한 설교가 있고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계속해서 요리강습회는 강사 황영옥선생(무고가와교회집사)에게 백설떡·검정깨죽·갈치조림·찌지미·고추장 만드는 법을 배우고 한국요리를 마음껏 즐겼다.

오후부터는 최미혜사회장의 사회로부터 회장회의를 가졌다. 각 교회 여성회회장으로부터 연간활동보고가 있었으며, 여성회회원의 수와 상황은 달라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활동하고 있어 서로에게 격려가 되었다.

(보고자 : 유정혜)



<서남지방여성회>

제62회 정기총회 개최

4월24일, 2016년도 제62회 정기대회를 7교회 29명이 참가한 가운데 고쿠라교회에서 개최되었다. 쿠마모토 대지진후에 모였기 때문에 앞으로의 지원에 관한 활동을 염두에 두고 적극적인 토의를 하였다.한영란회장(후쿠오카교회)을 중심으로 쿠마모토교회와 벳푸교회의 피해상태, 또한 주변의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조급한 과제라고 의견이 나왔다. 곤난한 상황이지만 각회원이 서로 협력하고, 주님의 도움을 빌면서 나아가기로 하였다.

서남지방회 여성부장 이혜란목사의 마태복음26:6-13의 본문으로 “한 여인의 고귀한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던, 주님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행위에서 여성회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자”고 권면하였다.



在日コリアン文化の創造と多文化共生社会を目指して、在日本韓国YMCAは皆様と共に歩みます。



東京◆ホテル：東京で一番安く便利な宿泊研修施設。フロントは日・韓・英語に対応、24時間営業。
10名様～200名様のお会議及び宿泊研修(50名)も可能。
◆スペースYホール：200席の多目的ホール。セミナー・コンサートなどに対応。
◆韓国文化教室(チャンゴ・カヤグム・舞踊) ◆韓国語講座 ◆各種こどもクラス
◆YMCA東京日本語学校(3ヶ月～2年、短期研修)
関西◆にほんご教室(新規開講・募集中) ◆韓国民俗芸術科(舞踊・チャンゴ)

在日本韓国YMCA <http://www.ymcajapan.org/ayc/jp/> *会員及び教職者割引有。詳しくはお問い合わせください。

東京韓国YMCAアジア青少年センター 〒101-0064 東京都千代田区猿樂町2-5-5 ☎03-3233-0611
関西韓国YMCAアジア青少年センター 〒537-0025 大阪市東成区中道3-14-15 ☎06-6981-0782

税込	平日	休・休前日
シングル	¥6,500	¥6,000
ダブル	¥10,500	¥9,700
トリプル	¥13,500	¥12,500
※朝食・コーヒー¥200(宿泊者価格)		

구마모토 대지진 피해자를 위해 기도하고 지원합시다



쿠마모토 소식

2016년4월14일 오후9시 26분 갑자기 땅속에서 뭔가 솟아오르는 것 같은 강한 지진이(진진) 쿠마모토를 덮쳤다. 보통일이 아니고 위험하다고 느껴 곧장 밖으로 뛰어 나왔다. 그리고 혼자 생활하고 있는 고령의 어머니를 살피달라는 먼 곳에 살고 있는 아들에게서 전화가 있어서 11층 아파트에 달려 갔다. 현관에 나오는 것도 어려운 집사님을 보고 일단 안심시켰다. 그리고 흩어진 물건들을 정리해 드렸다. 걱정하여 걸려오는 전화 메일, SNS에 대응하며 정리를 하고 날씨가 바뀔 시간에 돌아갈려고 하는데, 큰 여진이 있어 방금 정리한 것이 헛수고가 되고 말았다. 여기서 주무시는 것은 위험하다 판단되어 교회로 피난하시도록 하였다.

다음날 다시 집사님 아파트 정리를 위해 집사님과 같이 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리를 마쳤다. 일단락 마치고 잠을 자는데 16일 오전1시25분 또다시 크게 흔들렸다.(본진) 곧장 집사님을 다시 교회로 피난시켰다. 그리고 내 방에 와 보니 베게 옆에 책장이 넘어져 있는 것을 보고 생명을 건진 것을 실감하고 감사하였다. 집사님을 노인건강 시설에 모셔다 드리고 교인들 피해 상황을 확인해 보니, 집안의 물건들이 흩어져 엉망이 되었지만 다치거나 신체적 피해를 입은 사람은 없었다. 오후에 김병호총간사와 하카타 교회 최정강목사, 계속하여 일본기독교단 큐슈교구 임원들도 방문해 왔다. 교구 의장 우메자키목사는 쿠마모토교회를 교단 교구의 교회와 동등하게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 주일이 지나고 교구에서 많은 지원물품을 보내주어서 큰 도움을 받았다.

2번째 큰 지진 후의 16일(토) 오후 지진에 무서워 후쿠오카로 가는 것을 도와달라고 찾아온 쿠마모토대학의 한국인 유학생 4명을 엄청난 교통체증을 뚫고 전철이 통하고 있는 JR아라오역까지 보내주었다. 그동안 전화로 NPO법인 올리브집(출소자 주택 지원과 취업지원) 아오키 이사장으로 부터 전화가 와서 아파트가 반파되고 비도 오고 해서 피를 피하게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즉시 승락했다. 피난소에는 갈 곳이 없어서 밤도 늦고 해서 13명을 교회에 받아들였다. 지진 직후의 주일(17일) 예배는 올리브집

의 멤버들과 함께 감격적인 주일예배를 드렸다. 그들은 1개월 동안 교회에서 피난생활을 하면서 5월15일 주일예배를 그들과 함께 드리고 감사의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의 아파트로 돌아갔다. 그 외에도 아파트가 반파된 교인의 노모와 딸 집에 식재료 등을 지역 일본교회를 돌면서 모아서 전달하는 일도 하였다.

지진후 1개월이 지났다. 지원 물품 부족은 해소되었고, 이제부터는 피해자의 주택 문제, 생활의 불안 등이 요구되고 있다. 이제 는 피난소에 있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큐슈 임상종교사회가 하는 마음의 치유를 목적으로 하는 '카페 디 몽쿠' (이동 경청 찾집. 무료 커피 및 음료수, 케이크, 과자 등을 제공하며 피해자의 이야기를 듣는)를 총회 사회위원회, 서남지방회, 교단 큐슈교구 등과 협력하여 피난소 및 가설주택을 방문하며 실행하려 한다.

별써 지진후 1주간 뒤 부터 그랜뎃세쿠마모토 등의 시설에서 카페를 10번 정도 실행했다. 피해자들이 무척 좋아 하였다.



쿠마모토교회는 <요주의> 건물로 관정반야 안정성을 확인하지 않으면 안되는데 자원봉사자 숙박 장소로서 교회를 제공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피해지 지원은 이제부터 장기적으로 드러가게 된다. 기도를 모아 장기적인 지원들 부탁드리는 바이다.

●쿠마모토교회 김성효목사



구마모토지진 구원모금

○송금처: 郵便振替口座 00130-9-159228
口座名称 在日大韓基督教会

宣教師・神学生研修会

在日大韓基督教会に加入する宣教師と、神学校を卒業し伝道師考試を受験する者のために研修会を実施します。

◇日 時: 2016年7月4日(月) 14時~15日(金) 17時

◇宿泊・講義場所: 在日総会神学校(東京都足立区)

◇履修科目: 在日同胞史、KCCJ歴史、宣教理念、憲法、礼式書、韓日教会交流史、日本教会史、エキュメニカル神学、教会訪問 など。

◇交通費・参加費: 総会負担

・6月20日(月)までにEメールで申請してください。(info@kccj.jp)

・詳細は総会事務局に問い合わせてください。(総幹事080-4377-3927)

在日総会神学校 校長 鄭然元